

하루를 시작하며



김윤미  
시인

늦은 저녁 문밖을 나서는데 가까운 곳에서 아기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주변을 돌아보기도 전에 계단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두 마리의 아기고양이가 보였다. 설마 버려진 것은 아니겠지, 어미가 이소하고 있는 중일 거라고 믿으며 돌아섰다. 시간이 지나 새벽에 집에 들어서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뒹고 있었다. 알레르기 때문에 반려동물 입양을 끝끝내 포기해야 했던 우리 부부였다. 아기고양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망설이지도 않고 품으로 파고들었다. 결국 남편은 박스를 구해왔고 그렇게 우리는 두 마리

반려(反戾)아닌 반려(伴侶)

아기고양이의 부모가 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아기고양이는 서로만을 의지한 채 밤을 보냈다. 울지도 않고 주는 밥을 조심스럽게 삼키며 주린 배를 채우고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도대체 왜, 도대체 누가'라는 물음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변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지인들이 있기에 제주의 유기동물에 대한 심각성을 전해 들은바 있으나 '나의 일'이 아니었고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하기에 뉴스를 눈여겨보거나 찾아보지는 않았었다.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채 일명 '집사' 생활을 시작하니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살아있는 생명은 짐작과 예측이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다고 모든 게 충족되는 것도 아니었다. 자연스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나의 일'이 되어버린 '불편한' 진실

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와 비례해 유기동물의 숫자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 하루 평균 20~30마리가, 한 해에 8000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지고 있다. 반면에 입양률은 현저하게 낮아 올해 통계상으로도 제주도는 전국 최저의 입양률과 전국 최고의 안락사율을 기록했다. 유기동물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자 제주도는 유기동물 방지 정책으로 전국 최초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인지하여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반려동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반려(伴侶: 짝이

되는 동무)의 연으로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반려(反戾: 배반하여 돌아섬)하며 차가운 거리에 유기한다. 누군가 이야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며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다고. 동물은 최소한 먼저 돌아서지 않는다. 충성으로 보답하고 애교로 화답한다. 여전히 아기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자신은 없다. 점점 호기심 넘치고 예민해져서 야기되고양이를 덕분에 매일매일 수십 번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기고양이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전 처음 풀어보는 숙제를 던지고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무릎위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기고양이들을 바라보다 오늘도 제주도 어딘가 20~30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 저려오는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저려온다.

열린마당

제주가치 키우는 '공공디자인'



고경란  
제주도 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은 이제 공공장소나 시설물의 심미성, 기능성을 높이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 도는 하반기 직제 개편을 통해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를 신설하고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도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다. 즉, 주민의 마음에 호소해 행동을 환기하고 서로가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디자인에 공공성이 적용되

면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으로 이정표를 알기 쉽고 보기 좋게 만들고, 난립하는 간판을 정돈하고, 건물을 보기 좋게 설계해 도시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대중적 지향성을 가진 영역이다. 얼마 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 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편의성 부족과 이미지 과잉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주의 문화와 지역특색을 보여주는 통일감 있는 표준형태의 공공디자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의 생각과 삶을 넘어 나와 '함께'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공디자인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의 집단 지혜만큼 위대하지 않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 쓴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장과 모색' 심포지엄에서 "자기 철학만으로 결정한다면 독선이고 야집"이라며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지적. 그는 "도민 통합을 위해 자기 철학을 제쳐두고 도민 의견을 물어보는 게 행형"이라며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라 해도 도민의 집단 지혜만큼 위대하지 않다"고 쓴소리. 그러면서 "집단지혜가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 제2공화도 추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 이소진기자

해안가 퇴적물 처리 비지담

○...지난 18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 퇴적물이 해안가를 뒤덮는 가운데 해당 마을 주민들이 수거에 비지담. 남원읍 공천포에서는 비가 그친 20일부터 21일까지 신례리 주민과

이촌계원,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등이 나뉘어 퇴적물 수거작업에 참여. 남원읍 관계자는 "해안가 퇴적물 수거를 위해 해당 마을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심시일만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다"며 "24일까지는 수거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호른 우승자에 추가 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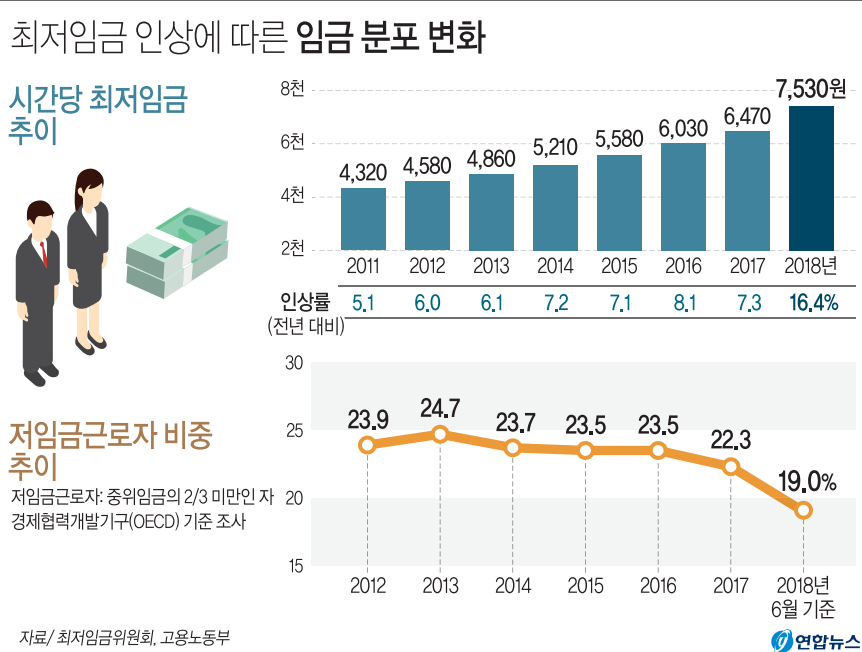
○...2019제주국제관광박람회 기간인 8월 8~16일 진행되는 국제관광박람회 호른 우승자에게 국제호른협회(IHS)가 추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21일 관악제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제호른협회가 김영률 서울대 교수를 통해 우승자에게 미화 1000달러를 수여하겠다는 뜻을 전달. 조직위 관계자는 "유명 악기사에서 악기를 부상으로 주고 있지만 상금 수여는 없었다"며 "올해 호른 우승자는 상금 8000달러, 호른 1점에 대해 10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고 설명. 진선희기자

사설

드론 불법비행, 항공기 안전 위협 문제다

무인 비행기로 불리는 드론(Drone)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방제용은 물론 감시·정찰·타격 등 드론을 이용한 군 작전에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산사태를 측정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감시하는 등 드론 활용범위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항공청에 따르면 드론 불법비행으로 이달 들어서만 두차례 정석비행장을 오가는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정석비행장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진 상공에서 정체 불명의 드론이 30~50m 고도로 비행하는 것을 정석관제탑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날 출현한 드론 때문에 제트항공기 2대가 20분 가량 상공에 머물다가 착륙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쯤에는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2~3대가 정석비행장 주변에 동시 출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해야 하는 드론이 2시간 가량 300m로 비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날 프로펠러 항공기 4대와 제트항공기 2대가 운항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정석비행장은 불법 드론이 나타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 행방을 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평균 400여대의 항공기가 오가는 제주국제공항도 드론 불법비행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드론이 제주공항 주변 상공을 허가 없이 침범해 비행한 사례는 6차례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에도 불법 비행 드론이 제주공항 주변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알다시피 드론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드론 관련 사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드론의 활용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드론 소유자의 준법의식이 낮아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공항과 정석비행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반경 9.3km 이내는 관제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미리 항공청이나 정석비행장 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법 비행을 일삼아 큰 일입니다. 특히 드론 불법 비행은 항공기와의 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픽 뉴스



부고
강원진(前 서귀포경찰서장) 어머니 고부이씨 동수(향년 89세)께서 서귀 2019년 5월 21일 14시 0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23일(목)
발인일시: 2019년 5월 24일(금)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해안동 선영
아들 강운진, 마느리 강복순, 웅진 이재갑, 월진 강정현, 군진 김미순, 딸 강인자 사위 류복희, 인숙 류복희, 손자 강창휘, 손녀 강지영, 지훈 지은, 경덕 지민, 경송 지수, 위사 류기욱, 위손녀 류아영
\* 연락처: 강원진 010-5383-9155, 강군진 010-3692-1561, 부민장례식장 742-5000

부고
강원규 어머니 제주고씨 곤순(향년 86세)께서 서귀 2019년 5월 21일 04시 30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23일(목)
발인일시: 2019년 5월 24일(금)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6빈소(별관)
장 지: 모슬봉가족묘지
아들 강원규, 마느리 박동숙, 원근(숙) 임영심, 원철, 원필, 원호 오경아, 딸 강원자 사위 신형기, 원심 전효진, 손자 강승보, 정훈
\* 연락처: 강원호 010-3692-3952

대림외과의원 이전
2019년 5월 21일(화) 서귀포시 중앙로 25-3 (구. 허봉진 정형외과)
남원읍에 개원 진료 중이던 대림외과의원이 서귀포시내 중앙로 25-3 (구. 허봉진 정형외과)으로 이전합니다. 2019년 5월 21일(화)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많은 이용과 성원 바랍니다.
대림외과의원 원장 성 대림
새로운 전화번호 064-764-6362
원장 핸드폰 번호 010-8889-6431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곡식용의약품 SCI A급 등록
대림병원 임상결과 일 50%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술2리 용암동골계 저문으로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그랜드보청기
가정의 말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고급 모델 1+1(원플러스원 행사)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한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제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
● 독립적인 호텔식 분향실 및 접객실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대중교통 270번, 793-1번 이용가능
<애월읍 순환버스, 일반간선버스 운영중>
노형에서 10분 거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노형방향 1.5km지점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에게서도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